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역사적 현재’ 번역에 대한 평가와 제언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

장성민*

1. 서론

가다머(H. G. Gadamer)의 말마따나, 우리는 각기 다른 전통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저마다 특유한 ‘영향사적 의식’이다.¹⁾ 그럼에도 우리말 성경에 관한 한,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성경전서』(1911)로부터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특정한 번역 전통의 영향권 아래에 포섭되어 있다. 전통은 늘 양가적이어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경험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질식시킬 수도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기성세대와 사용 언어 및 읽기 양상을 달리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 출간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하 『새한글』로 약기)은 막힌 숨통을 틔워줄 신선한 공기와도 같다.

『새한글』의 머리말은 “한국어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새롭고 참신한 용어와 방식을 사용하되, 성경으로서 원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하였다”고 밝힌다. 실제로 『새한글』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쉽고

* 장로회신학대학교(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객원교수. hefzibar0813@gmail.com. 본 논문은 2022년 4월 23일 안양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제113차 한국신약학회 정기학술대회 “성서번역의 이상과 현실: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H. G. 가다머,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임흥배 역 (서울: 문학동네, 2012), 183 이하.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하되, 원문의 문법적 구조뿐 아니라 어원적 특징과 어순의 강조점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원문에 가깝게 번역”함으로써 우리말 성경 번역 전통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새한글』이 한글 번역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어 원문의 이른 바 ‘역사적 현재’(historical/historic present)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겼다는 점이다.²⁾ 이는 우리말 성경 번역 전통에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평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낮설고 새로운’ 시도이다. 낮설고 생경한 만큼 향후 평가와 개정 과정에 가장 활발하게 논의될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나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새한글』의 ‘역사적 현재’ 번역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개정 과정에 고려할 만한 의견을 두어 가지 제안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새한글』이 ‘역사적 현재’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번역한 취지

『새한글』이 ‘역사적 현재’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긴 것은 여러모로 획기적이고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는 기존의 번역 전통과 두드러지

2) 언어학이나 수사학에서 ‘역사적 현재’(historical/historic present)란 실제 과거의 사실이든 상상된 세계의 사실에 대한 것이든 과거 사건을 묘사하는 서사문에서 사용된 현재시제를 일컫는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526; 고영근, “민족문학작품과 서사시제”, 『冠嶽語文研究』 33 (2008), 56-70; 송해정, “‘역사적 현재’ 다시 보기: 러시아어의 언어특성 분석을 통하여”, 『언어와 언어학』 59 (2013), 100; 김언자, “서사텍스트에서의 현재시제의 용법”, 『불어불문학연구』 48 (2001), 549 등의 언어별 설명을 보라. 이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과거시제로 다시 교체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서사문의 경우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나 독백, 인용문 등 수신자를 직접 의식하는 ‘상관적 발화 장면’이 아니라 수신자를 직접 의식하지 않는 ‘단독적 발화 장면’에 국한된다. 다르게는 ‘서사적 현재’(narrative present), ‘극적 현재’(dramatic present)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대다수의 표준적인 고대 그리스어 문법서는 이 시제의 용법을 예단하여 ‘역사적 현재’를 정의한다. W. W. Goodwi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of the Greek Verb*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889), 11(§33); E. D.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Edinburgh: T. & T. Clark, 1898), 9; H. W. Smyth, *Greek Grammar*, G. M. Messing, rev.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422;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866;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and rev.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이하 BDF로 약기), 167(§321); K. L. McKay,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An Aspectual Approach* (New York: Peter Lang, 1994), 42.

게 다른 특징으로서, 그간의 관행은 국어와 서양어를 막론하고 출발어의 ‘역사적 현재’를 도착어의 과거시제로 바꾸어 번역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우리말 성경은 마가복음 1:12(Καὶ εὐθὺς τὸ πνεῦμα αὐτὸν ἐκβάλλει εἰς τὴν ἔρημον)의 ‘역사적 현재’인 ἐκβάλλει를 각각 ‘몰아내신지라’(『개역개정』)와 ‘내보내셨다’(『새번역』, 『공동개정』)처럼 과거시제로 옮겼으나, 『새한글』은 ‘내모신다’라는 현재시제로 번역하였다(NIV, NRSV, NAS 등도 참조). 『새한글』의 번역 특징을 해설한 자료집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 해설집』의 “마가복음 번역 해설”(이하 “번역해설”로 약기) 편에 따르면, 이 구절을 ‘내모신다’라는 현재시제로 번역한 것은 “(원문의) ‘역사적 현재’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 결과”로서, “마가는 역사적 현재시제를 적극 활용하여 내용 묘사에 생동감을 더하는 특징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이다.³⁾ “번역해설”은 이러한 문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번역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원문으로 읽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독특한 문체의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한다.⁴⁾ “번역해설”은 여기에 더해 실제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4:1과 누가복음 4:1을 마가복음 1:12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마태와 누가의 평행 본문은 각각 ἀνίχθη(부정과거)와 ἤγειρο(미완료)라는 ‘2차 시제’를 사용하며, 어휘와 시제가 모두 마가복음 본문과 다르다. 따라서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살려서 번역할 경우… 복음서 저자들 사이의 문체적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⁵⁾ 동일한 취지의 설명은 마가복음 2:5, 10; 3:3, 13에서도 반복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말 성경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읽는 독자라면 이러한 취지를 알고서 본문을 접할 경우 상당한 유익과 참신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2.2. 번역 현황과 평가

우선 번역 현황을 살펴보자. 마가복음에는 ‘역사적 현재’가 150회 가량 쓰인다.⁶⁾ 이는 등장인물들 간의 대사나 인용문 등을 제외한 단독적 발화 장

3) 이두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25.

4) Ibid.

5) Ibid., 26.

6) 다수의 문법서나 논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역사적 현재’의 횟수를 151회라고 제시한다. 예를 들어, C. D. Osburn, “The Historical Present in Mark as a Text-Critical Criterion”, *Biblica* 64 (1983), 486;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Clarendon Press, 1990) 234, 각주 75;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528; S. H. Levinsohn, *Discourse Features of New Testament Greek: A Coursebook on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New Testament Greek* (Dallas: SIL International, 2000) 201;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면에 국한한 것으로서, 실제 서사 전개만을 포함한다. “번역해설”은 일러두기에서 “역사적 현재 시제의 번역을 원문대로 현재 시제로 번역”했다고 밝히지만,⁷⁾ 실제 번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원문에는 분명히 ‘역사적 현재’가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은 구절이 몇 군데 눈에 띈다. 아래에서는 ‘역사적 현재’임에도 이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은 경우를 중심으로 이를 현재시제로 옮긴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새한글』의 ‘역사적 현재’ 번역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해 보겠다.

2.2.1.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은 경우

먼저 정확한 이유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현재’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은 경우가 더러 발견된다. 이를 차례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30 και εὐθὺς λέγουσιν αὐτῷ περὶ αὐτῆς.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다.”)

7:5 και ἐπερωτῶσιν αὐτὸν οἱ Φαρισαῖοι καὶ οἱ γραμματεῖς·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어보았다.”)

7:34 και ἀναβλέψας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ἐστέναξεν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씀하셨다.”)

11:7 Καὶ φέρουσιν τὸν πῶλον πρὸς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ἐπιβάλλουσιν αὐτῷ τὰ ἱμάτια αὐτῶν

(“두 제자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펴 놓았다.”)

14:61 πάλιν ὁ ἀρχιερεὺς ἐπηρώτα αὐτὸν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15:17 καὶ ἐνδιδύσκουσιν αὐτὸν πορφύραν καὶ περιθέασιν αὐτῷ πλέξαντες ἀκάνθινον στέφανον·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여어 씌었다.”)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07), 68;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Oxford: Peter Lang, 2019), 320. 이 통계는 흔히 J. C. Hawkins, *Horae Synopticae* (Oxford: Clarendon Press, 1909), 144-149를 인용한 것이며, 등장인물들 간의 대사나 인용문 등을 제외하고 단독적 발화 장면에 국한한 것이다. 하지만 호킨스(J. C. Hawkins)의 통계는 WHT(Westcott-Hort Text)에 기초한 것이며, 아마도 막 12:18의 관계사절(οἵτινες λέγουσιν ἀνάστασιν μὴ εἶναι)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NTG²⁸과 ECM(Editio Critica Maior)을 기준으로 헤아려 본 바에 따르면 마가복음에 ‘역사적 현재’가 나타나는 횟수는 총 150회이다.

7) 이두희, “번역해설”, 10.

이 가운데 마가의 특수 자료에 속하는 단락의 일부인 7:34를 제외하면 이 구절들은 모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에서 시제가 달라지거나 시제와 어휘가 동시에 바뀐 경우로서, 마가복음과 비교할 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본문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구절들이다. 병행 구절들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마가복음과 병행 구절들 사이의 차이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구절	동사	번역	구절	동사	번역	구절	동사	번역
1:30	λέγουσιν	“말씀 드렸다”	-	-	-	4:38	ἠρώ- τησαν	“부탁 드렸다”
7:5	ἐπερω- τῶσιν	“여쭙어 보았다”	15:1	λέγον- τες	“말씀 드린다”*	11:38	ἐθαύ- μασεν	“이상하게 여겼다”
11:7	φέρουσιν	“끌고 와서”	21:7	ἤγαγον	“데려와서”	-	-	-
11:7	ἐπιβάλ- λουσιν	“퍼 놓았다”	21:7	ἐπέθη- καν	“얹어놓았다”	-	-	-
14:61	λέγει	생략	26:63	εἶπεν	“말했다”	22:67	λέγον- τες	“말했다”
15:17	ἐνδιδύ- σκουσιν	“입히고”	27:28	περιέ- θηκαν	“입혔다”	-	-	-
15:17	περιτι- θέασιν	“씻었다”	27:29	ἐπέθη- καν	“씻우고”	-	-	-

* 이는 현재분사 λέγοντες를 ‘역사적 현재’인 προσέρχονται와 연결지어 “다가와서 말씀드린다”라고 번역한 결과다.

이처럼 일부 ‘역사적 현재’의 용례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은 것은 “번역해설”이 1:12; 2:5, 10; 3:3, 13에 대한 설명에서 반복적으로 밝힌 취지, 곧 마가복음의 문체적 특징을 살리고 공관복음서들 사이의 문체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역사적 현재’를 현재시제로 번역했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마가복음 1:30의 경우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인 4:38은 다른 동사의 부정과거형(ἠρώτησαν)을 사용하는데, ‘역사적 현재’를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은 탓에 마가복음 1:30의 “말씀드렸다”와 누가복음 4:38의 “부탁드렸다”라는 사이에는 어휘의 차이만 확인될 뿐 시제 차이는 변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들은 향후 개정 과정에 현재시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마가복음 14:61

다만 이 가운데 몇 구절의 경우, 원문의 ‘역사적 현재’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은 이유를 나름대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다. 먼저 14:61은 유사한 의미의 발화 동사를 각각 주동사로 삼는 두 개의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인데, 이때 λέγω가 두 번째 절에서 ‘역사적 현재’ 시제의 주동사로 사용된다. 논의의 목적상 동일한 형식의 8:33과 이 구절을 비교해 보자.

πάλιν ὁ ἀρχιερεὺς ἐπιρώτα αὐτὸν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14:61)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ἐπετίμησεν Πέτρῳ καὶ λέγει (8:33)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두 구절 모두에서 λέγω는 ἐπιρώτα나 ἐπετίμησεν과 구별되는 별도의 발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묻다’라는 행위는 ‘말하다’라는 일반적 행위의 구체적 예에 해당하며, ‘나무라다’도 마찬가지다. 대제사장은 ‘묻고’ 난 다음 재차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물었다.” 예수도 베드로를 ‘나무라’ 후 별도의 ‘말씀’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를 “나무라셨다.” 말하자면, ‘말하다’라는 동사는 ‘묻다’나 ‘나무라다’보다 지시하는 범위가 넓어서 이 동사들의 의미 영역을 포괄하는 상위어(hyponym)인 셈이다. 반대로 ‘묻다’나 ‘나무라다’는 ‘말하다’보다 지시하는 범위가 좁아서 상위어의 의미를 전부 표현하지 못하는 하위어(hyponym)다. 이에 따라 ‘말하다’라는 상위어와 ‘묻다’, ‘나무라다’ 따위의 하위어는 발화 행위라는 의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⁸⁾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 물었다”라는 문장은 “대제사장이 말했다”를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일방함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역개정』(“물어 이르되”)처럼 14:61의 상위어와 하위어를 모두 번역하면 불필요한 의미 중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자면 상위어와 하위어가 나란히 나오는 문장을 번역할 때는 의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상위어를 생략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14:61의 경우도 동일한 이유로 하위어 중심의 번역문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새번역』의 “물었다”라는 번역도 참조). 이 경우는 의미 중복을 회피하면서 자연스러운 번역문을 구성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역사적 현재’라는 마가 특유의 문체를 희생하고 얻은 결과라는 단점이 있다.

이와 달리 8:33은 동일한 형식임에도 상위어를 생략하지 않고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따로 옮겼다. 이 경우는 14:61

8) 윤평현, 『국어의미론 강의』 (서울: 역락, 2013), 142-144.

과 달리 비록 의미가 중복되더라도 ‘역사적 현재’라는 마가의 문체를 잘 살린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14:61처럼 의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상위어를 생략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8:33처럼 둘을 따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가? 『새한글』이 ‘역사적 현재’를 자주 활용하는 마가의 문체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번역하겠다는 지침을 설정한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구문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좌우지간 일정한 원칙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는 상위어-하위어 구조의 문장은 번역 과정에서 상위어를 생략하되 상위어가 담당하는 담론-화용적 기능(discourse-pragmatic function)을 살려 번역문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언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겠다.

(2) 마가복음 7:34

또 하나 주목해 볼만한 경우는 7:34이다. 이 구절은 앞선 예들처럼 상위어-하위어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부정과거 시제의 주동사와 ‘역사적 현재’ 시제의 주동사가 연이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8:33이나 14:61과 문장 형식이 비슷하다. 논의의 목적상 이 구절도 어휘와 형식이 유사한 8:12와 비교해서 살펴보자.

ἔστέναξεν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7:34)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씀하셨다.”

ἀναστενάξας τῷ πνεύματι αὐτοῦ λέγει (8:12)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씀하신다.”

먼저 7:34는 각각 부정과거 시제의 ἔστέναξεν과 ‘역사적 현재’ 시제의 λέγει를 주동사로 삼는 두 개의 절이 대등하게 이어지는 문장으로서, 『새한글』은 번역문을 한 문장으로 구성하면서 λέγει를 “말씀하셨다”라는 과거시제로 번역하였다. 7:34를 8:33처럼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씀하신다”라고 옮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경우는 8:33이나 14:61처럼 두 개의 주동사 사이에 일방 함의 따위의 계층구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현재’를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 구절과 어휘와 형식이 매우 유사한 8:12는 (비록 전치사와 합성되긴 했지만) 동일한 동사의 부정과거 분사인 ἀναστενάξας 다음에 ‘역사적 현재’ 시제의 주동사인 λέγει가 이어지는 단일한 절로서, 여기서는 λέγει를 “말씀하신다”라는 현재시제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7:34의 λέγει는 향후 개정 과정에 현재시제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7:34의 λέγει는 부정과거 시제의 연쇄를 통해 예수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을 상술하는 33-34절의 일부로서(καὶ ἀπολαβόμενος αὐτὸν ἀπὸ τοῦ ὄχλου κατ’ ἰδίαν ἔβαλεν τοὺς δακτύλους αὐτοῦ εἰς τὰ ὄτα αὐτοῦ καὶ πύσας ἤψατο τῆς γλώσσης αὐτοῦ, καὶ ἀναβλέψας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ἐστέναξεν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마가는 연속적인 치유 행위의 절정 부분에서 시제에 변화를 주어 이어지는 결정적 발화(εφραθα)를 한껏 부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5:25-27도 참조).⁹⁾ 이렇게 보자면,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씀하셨다”처럼 앞 동작과의 순차성을 강조하는 병렬식 문장이 아니라, “한숨을 내쉬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와 같이 별도의 문장으로 옮기는 것이 이러한 수사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더 좋은 방식일 것이다.¹⁰⁾ 반대로 8:12의 λέγει는 문맥상 부정과거 분사 ἀναστενάξας가 표현하는 완결된 동작 다음에 이어지는 발화 행위를 표현하므로,¹¹⁾ 오히려 7:34의 번역처럼 행위의 순차성을 강조하여 “한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말씀하신다**”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2.2.2. 형식이 동일한 구문을 다르게 옮기거나 동일하지 않은 구문을 같게 옮긴 경우

동일한 형식의 구문을 다른 방식으로 옮기거나 동일하지 않은 형식의 구문을 동일한 방식으로 옮긴 경우도 몇 군데 눈에 띈다.

(1) 마가복음 11:33

먼저 동일한 형식의 구문을 다른 방식으로 옮긴 경우는 11:33이다.¹²⁾

καὶ ἀποκριθέντες τῷ Ἰησοῦ λέγουσιν· οὐκ οἶδαμεν (11:33)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오.” 하고 **말한다**.”

9) ‘역사적 현재’가 그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두드러지게 하려는 의도로 쓰인다는 주장은 S. H. Levinsohn, *Discourse Features of New Testament Greek*, 200 이하; S. E. Rung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A Practical Introduction for Teaching and Exegesi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128 이하를 보라. 아울러 아래의 상세한 논의를 참고하라.

10) 여기에서 ‘역사적 현재’인 λέγει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로 옮긴 이유는 아래의 제언을 보라.

11) *BDF*, §339.

12) ἀποκρίνομαι는 마가복음에서 총 30회 나타나는데, 주동사로 사용되는 경우(7:28; 8:4; 9:17; 12:29; 14:61; 15:4, 5, 9)나 안긴문장(9:6; 12:28, 34; 14:40), 상관적 발화 장면(11:29, 30; 14:60)을 제외하면 나머지 15회는 모두 부정과거 분사로 쓰인다(3:33; 6:37; 8:29; 9:5, 19; 10:3, 24, 51; 11:14, 22, 33; 12:35; 14:48; 15:2, 12).

이 구절에는 부정과거 분사(ἀποκριθέντες)와 ‘역사적 현재’ 시제의 주동사(λέγουσιν)가 연이어 나온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새한글』이 ἀποκρίνομαι의 부정과거 분사와 ‘역사적 현재’ 시제의 주동사 λέγω가 나란히 이어지는 구문을 대체로 일관되게 “대답한다/대답하신다”로 옮긴다는 점이다(3:33; 8:29; 9:5, 19; 10:24; 11:22, 33; 15:2). 짐작컨대, 이러한 구문의 경우 시제는 ‘역사적 현재’의 것을 살리되 발화 행위 자체는 분사의 어휘적 의미를 기준으로 삼아 이 둘을 조합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¹³⁾ 부정과거 분사와 현재 시제의 주동사 사이에는 구문적 위계가 형성되므로 시제는 주동사를 기준으로 삼되,¹⁴⁾ 어휘적 의미는 두 어휘 사이에 성립하는 상위어-하위어라는 일방 함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위어의 것을 따름으로써 의미 중복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즉, 하위어를 현재시제로 옮김).¹⁵⁾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는 11:33의 번역은 다소 의외다. 분사와 주동사의 어휘적 의미를 모두 살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오.” 하고 **말한다**.” 오히려 이 구절도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하위어의 어휘적 의미를 살리되 상위어의 시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옮기는 것이 일관성도 유지하면서 직접화법이 이어지는 어순도 잘 살리는 방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한다**. “알지 못하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나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여기에 ‘역사적 현재’인 λέγουσιν이 담당하는 담론-화용론적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2) 마가복음 7:28

7:28은 조금 더 미묘하다. 이 문장에서는 ἀποκρίνομαι와 λέγω가 모두 주동

13) 이에 반해 ἀποκρίνομαι가 다른 시제의 주동사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일관성을 찾기 힘들다: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αὐτοῖς(“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6:37),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αὐτοῖς(“예수님이 되물으셨다,” 10:3), καὶ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αὐτῇ(“이때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11:14), Καὶ ἀποκριθεὶς ὁ Ἰησοῦς ἔλεγεν …(“이어서 예수님이 … 말씀하셨다,” 12:35), καὶ ἀποκριθεὶς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οῖς(“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4:48), ὁ δὲ Πιλάτος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λέγων(“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15:9), ὁ δὲ Πιλάτος πάλιν ἀποκριθεὶς ἔλεγεν αὐτοῖς(“빌라도가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물었다,” 15:12).

14) C. F. D. Moule,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99; D. J. Mastrorarde, *Introduction to Attic Greek*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230.

15) 나는 다른 곳에서 λέγω가 현재 시제-형태이면서 동시에 상위어로 쓰이는 구문의 경우, 분사와 주동사 사이의 위계, 상위어-하위어 관계, 담론-화용론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담론-화용론적 기능을 살려 번역문을 구성해야 한다고 논증한 바 있다. 장성민, “마가복음에서 상위어(hypernym)로 쓰이는 λέγω의 현재 시제-형태 번역 제안”, 『신약논단』 29:1 (2022), 1-30.

사로 사용되었다. 이 구절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문장은 앞서 살펴본 14:61이다.

ἡ δὲ ἀπεκρίθη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7:28)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πάλιν ὁ ἀρχιερεὺς ἐπιρώτα αὐτὸν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14:61)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구절들에서 λέγω는 다른 주동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발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은 14:61처럼 구체적인 발화 행위를 표현하는 하위어를 중심으로 번역문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각 구절의 번역은 시제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준다. 7:28은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다.**”라고 현재시제를 사용한 반면, 14:61은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라고 과거시제로 옮겼다. 7:28은 형식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καὶ ἀποκριθεὶς αὐτοῖς λέγει(3:33 등)처럼 부정과거 분사와 ‘역사적 현재’ 시제의 주동사가 이어지는 구문에 준해서 옮긴 것처럼 보인다(‘역사적 현재’의 시제+하위어의 어휘적 의미). 하지만 ‘분사+주동사’라는 형식과 달리 ἀπεκρίθη와 λέγει 사이에는 구문적 위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어휘를 몽둥그려 하나의 낱말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14:61은 7:28과 동일한 형식임에도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고 단순히 상위어로 쓰인 ‘역사적 현재’(λέγει)를 생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시점에서는 7:28처럼 부정과거 분사 형태와 ‘역사적 현재’ 시제의 주동사가 이어지는 구문처럼 절충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지, 14:61처럼 상위어로 쓰이는 ‘역사적 현재’ 시제의 주동사를 아예 생략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¹⁶⁾ 다만 나는 이 경우도 상위어인 λέγει가 담당하는 담론-화용론적 기능을 반영하여 번역문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3) 마가복음 14:37, 40

이와는 반대로 동일하지 않은 형식의 구문을 같게 옮긴 경우도 눈에 띈

16) 여기에 더해 10:24(ὁ δὲ Ἰησοῦς πάλιν ἀποκριθεὶς λέγει αὐτοῖς[“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와 12:35(καὶ ἀποκριθεὶς ὁ Ἰησοῦς ἔλεγεν διδασκῶν ἐν τῷ ἱερῷ[“**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의 경우도 주목해 볼 만하다. 두 구절은 공히 상위어를 중심으로 번역문을 구성하되 분사인 ἀποκριθεὶς를 “이어서”라고 옮겼다.

다. 예수가 체포되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14:37과 14:40이 그것이다. 두 문장은 시제를 제외하면 어휘와 구문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

καὶ ἔργεται καὶ εὐρίσκει αὐτοὺς καθεύδοντας (14:37)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다.”

καὶ πάλιν ἔλθὼν εὗρεν αὐτοὺς καθεύδοντας (14:40)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긴박한 상황을 유사한 방식으로 세 번 반복해서 보여준다(41절, καὶ ἔργεται τὸ τρίτον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도 참조). 동일한 내용이나 모티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기법은 마가의 주요한 수사 전략으로서(예컨대, 수난 예고를 반복하는 8:31; 9:31; 10:33-34 참조), 마가는 14장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구사한다.¹⁷⁾ 이 과정에 마가는 동일한 표현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 시제에 적절한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장면마다 관점상 어떤 거리감(remoteness)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¹⁸⁾ 특히 14:37과 14:40은 각각 ‘역사적 현재’ 시제와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동일한 장면을 반복하되 전혀 다른 느낌으로 묘사한다. 말하자면, 37절은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장면을 내부적인 관점에서 ‘줌인’(zoom in)하는 느낌이라면, 40절은 부정과거 시제를 활용함으로써 해당 장면을 외부적인 관점에서 ‘줌아웃’(zoom out)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14:37(“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다.”)과 14:40(“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의 번역을 서로 비교해 보면, 분사(καθεύδοντας)의 번역어(자고 있다/자고 있었다)에서 시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주동사(와 분사)의 시제 변화와 그로 인한 어감 차이를 변별하기는 쉽지 않다. 두 문장에서 마가가 시제 변화를 통해 변별하고자 한 것은 제자들의 모습(“자고 있다”/“자고 있었다”)이 아니라, 예수의 동작을 묘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관점(“온다 그리고 [자고 있는 것을] 본다”와 “와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의 차이(내부적/외부적)와 이로써 극적으로 구현되는 현장감

17) F. Neirynck, *Duality in Mark: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the Markan Redaction*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2), 100, 135.

18) 고대 그리스어 시제의 핵심 개념을 저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동작상’(aspect)으로 간주하고, ‘동작상’을 내부/외부라는 관점과 거리감의 차이로 설명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C. R. Campbell,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34-45;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4-307; 박진호, “시제, 상, 양태”, 『國語學』 60 (2011), 289-322, 특히 303 이하 등을 보라.

이다.¹⁹⁾ 하지만 아쉽게도 『새한글』은 동일하지 않은 형식의 구문을 동일한 방식으로 옮김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반감시켜 버렸다.

2.2.3. 한 문장으로 처리하느라 현재시제가 살아나지 못한 경우

한 문장으로 처리하느라 현재시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 마가복음 11:7상반

먼저 살펴볼 구절은 11:7상반이다. 이 구절을 12:16과 비교해 보자.

καὶ φέρουσιν τὸν πῶλον πρὸς τὸν Ἰησοῦν καὶ ἐπιβάλλουσιν αὐτῷ τὰ ἱμάτια αὐτῶν (11:7상반)

“두 제자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펴 놓았다.”

οἱ δὲ ἤνεγκαν,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12:16)

“그들이 가져오자 예수님이 물으신다.”

두 구절은 공히 φέρω 동사 다음에 ‘역사적 현재’가 이어지는 형식인데, 둘 중에서 11:7상반에서는 φέρω가 ‘역사적 현재’로, 12:16에서는 φέρω가 부정과거로 쓰였다. 두 구절은 모두 별개의 주동사가 쓰인 두 개의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인데, 『새한글』은 공히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어미인 ‘-고, -며’ 등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먼저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아서/어서’[11:7]/‘-자’[12:16])로 두 절을 연결하여 번역문을 구성하였다. 우리말에는 앞뒤 절의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앞 절 사건이 항상 먼저 일어남을 나타내는 ‘-고서, -아서/어서, -(으)ㄴ들, -건대, -자, -(으)ㄴ수록’ 등에는 시제를 나타내는 ‘-았, -겠, -더’ 등의 어미를 붙이지 못하는 문법적 제약이 존재한다(*끌고 왔서, *가져 왔자).²⁰⁾ 이 경우에 앞 절의 시제는 뒷 절의 시제어미로 미루어 볼 수밖에 없는데, 11:7상반은 ‘역사적 현재’인 ἐπιβάλλουσιν을 “펴 놓았다”라는 과거시제로 종결함으로써 또 하나의 ‘역사적 현재’ 시제인 φέρουσιν마저 과거시제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에 반해 12:16은 ‘역사적 현재’인 λέγει를 “물으신다”라는 현재시제로 종결함으로써 부정과거 시제인 ἤνεγκαν이 현재시제처럼 읽히게 만들었다. 따라서 두 구절 모두 두 절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사용

19) 박진호, “시제, 상, 양태”, 320.

20) 남기삼,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탐출판사, 2011), 406.

하거나, 문장을 둘로 나누어 첫 번째 절에 쓰인 동사들의 시제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²¹⁾

(2) 마가복음 15:17, 22

대등하게 이어지는 절을 하나의 번역문으로 처리하느라 ‘역사적 현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극적인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다. 15:17, 22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구절이 포함된 단락이 ‘역사적 현재’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십자가 처형에 가담한 병사들의 행태를 근접 묘사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καὶ ἐνδιόσκουσιν αὐτὸν πορφύραν καὶ περιθήασιν αὐτῷ πλέξαντες ἀκάνθινον στέφανον(15:17)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지 왕관을 엮어 씌웠다.”

Καὶ φέρουσιν αὐτὸν ἐπὶ τὸν Γολγοθᾶν τόπον(15:22)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15:17은 15:16-27에 속하며, 이 단락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못박는 장면이다. 마가는 이 장면에서 ‘역사적 현재’를 9회나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수난의 절정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한다.²²⁾ 말하자면, 마가는 이 단락에서 ‘비완결적 동작상’²³⁾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장면과 행태를 내부적

21) 이는 마가 문체의 또 다른 특징인 접속사 καὶ의 과도한 사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나는 ‘역사적 현재’를 현재시제로 옮기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번역 과정에 가능한 한 καὶ를 살리는 것이 마가의 독특한 문체를 느끼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22) 마가가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현재시제’를 적극 활용하여 청자들과 장면 사이의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좁힌다는 점은 시 21:19(LXX)를 암시하는 24절에서도 잘 드러난다. 마가는 시 21:19의 부정과거 시제들(διεμερίσαντο, ἔβαλον)을 각각 직설법(διαμερίζονται)과 분사(βάλλοντες)의 현재형으로 바꾼다.

23) ‘비완결적 동작상’은 동사상(verbal aspect)에 관한 최근 논의에 자주 쓰이는 imperfective aspect를 번역한 것이다. Imperfective는 우리말로 ‘미완결적’, ‘미완료적’, ‘비완망적’ 등으로 번역되지만, 해당 동작이나 상황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uncompleted) 묘사한다기보다 내부적인 관점에서 ‘완결적이지 않게’(incomplete) 보여주거나 묘사한다는 의미에서 ‘비완결적’이라는 뜻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완료적’, ‘완망적’ 따위로 번역되는 ‘perfective’의 본질도 ‘종결’, ‘완료’, ‘끝남’(completed)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온전하게 시야에 넣고 ‘통째로’(as a whole) 바라본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 더해 ‘완료시제’(perfect)와 ‘미완료시제’(imperfect tense)라는 전통적인 문법 용어들과도 변별하기 위해 imperfective와 perfective를 각각 ‘비완결적’, ‘완결적’으로 옮긴다. B. Comrie,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16-40; 김천학, “동사와 상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한국어의 완망상과 비완망상에 대하여”, 『한국어학』 57 (2012), 179-206; 문숙영, “상 범주의

인 관점에서 박진(迫眞)하게 묘사하고 한껏 부각시켜 청중들을 이 장면 안으로 끌어당긴다.²⁴⁾ 그러므로 이 단락에 나오는 각각의 ‘역사적 현재들’은 세심한 번역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15:17은 그중에 하나인 περιτιθέασιν을 “씨웠다”처럼 과거시제로 번역함으로써 극적인 묘사를 반감시켰으며 바로 앞에 나오는 ἐνδιδύσκουσιν마저 ‘역사적 현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울러 15:22의 φέρουσιν도 “데려가는 데”처럼 연결어미로 처리함으로써 ‘역사적 현재’라는 점이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따라서 마가의 극적인 묘사를 살리려면 여러 개의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기보다 ‘역사적 현재’가 포함된 절을 각기 별도의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2.2.4.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사소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도 발견된다. 내가 판단하기에 11:4와 15:24의 번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1) 마가복음 11:4

먼저 11:4하반을 살펴보자. 『새한글』은 이 구절을 아래와 같이 옮겼다.

καὶ λύουσιν αὐτόν(11:4하반)
“그들은 그 나귀를 풀어 준다.”

11:4하반은 예수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보낸 두 제자가 베다니 성문에 당도하여 문에 매여 거리 쪽 바깥에 있는 나귀를 발견한 후 취한 행동을 묘사한다. 11:4상반은 이렇다: “두 제자가 떠나가서 보니 어린 나귀가 문에 매여 거리 쪽 바깥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11:4하반(λύουσιν αὐτόν)과 같은 행동을 취한다. 그러자 근처에서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제지하며 이렇게 묻는다: “어린 나귀를 풀어서 뭘 하려는 거요?”(τί ποιεῖτε λύοντες τὸν πῶλον;) 문맥상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매여 있는 나귀를 ‘방면’하듯 ‘풀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푸는’ 모습을 보고 제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4하반은 나귀를 ‘방면’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

의미와 종류에 관한 몇 문제”, 『震檀學報』 120 (2014), 129-158, 특히 131-139; 박진호, “시제, 상, 양태”, 289-322, 특히 303-308 등의 논의를 보라.

24) B.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233; C.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70-71; A. Y. Collins,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725-726.

지가 있는 ‘풀어준다’가 아니라,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데려가려 한다는 뜻에서 ‘푼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2) 마가복음 15:24

이와 달리 15:24의 번역은 현재 분사를 ‘역사적 현재’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καὶ σταυροῦσιν αὐτὸν καὶ διαμερίζονται τὰ ἱμάτια αὐτοῦ βάλλοντες
κλῆρον ἐπ’ αὐτὰ …(15:24)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누
다. … 제비를 뽑는다.”

이 구절은 두 개의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다음 분사구가 이어지는 문장인데, 각 절을 기준으로 번역문을 나누지 않고 두 번째 절의 주동사까지 끊어 하나의 번역문을 구성한 후(“그들은 … 나눈다.”), 이어지는 분사구(βάλλοντες 이하)를 별도의 번역문으로 구성하였다(“누가 … 뽑는다”). “번역해설”은 “본문 중간에 갑자기 현재시제가 나타날 경우 ‘역사적 현재’의 번역으로 이해”하라고 안내하기 때문에,²⁵⁾ 이 경우 실제로는 원문의 현재 분사를 번역한 것임에도 “제비를 뽑는다”라는 표현을 접한 독자들이 이를 ‘역사적 현재’를 번역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아마도 이러한 번역은 ‘역사적 현재’ 시제의 주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현재 분사를 주동사와 같은 시점에 일어난 동작으로 간주하고 분사의 번역문 시제를 주동사에 맞춘 결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된 여러 문헌들에는 문체에 따라 주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분사가 오히려 주된 동작을 나타내거나,²⁶⁾ “선행하는 주동사와 동등한 의미론적 서열을 갖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난다.²⁷⁾ 이렇게 보자면, 이와 같은 구문의 현재분사를 『새한글』 식으로 번역하는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우리말 번역문에 ‘역사적 현재’에서 연원하지 않은 현재시제가 추가로 나타남으로써 혼란을 초래

25) 이두희, “번역해설”, 26.

26) R. Kühner and B. Gerth, *Ausführliche Grammatik der griechischen Sprache* (Hannover: Hahnsche Buchhandlung, 1992, 1898), 298.

27) R. E. Longacre, “Mark 5.1-43: Generating the Complexity of a Narrative from Its Most Basic Elements”, S. E. Porter and J. T. Reedm eds., *Discourse Analysis and the New Testament: Approaches and Resul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9), 177; S. H. Levinsohn, “Verb Forms and Grounding in Narrative”,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173-174에서 재인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 현재’ 시제의 주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가 이어지는 경우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θεωροῦσιν τὸν δαίμονιζόμενον **καθήμενον** ἱματισμένον καὶ σωφρονοῦντα
(5:15)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눈여겨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다**.”

ἔρχονται ἀπὸ τοῦ ἀρχισυναγώγου **λέγοντες** (5:35)

“그 회당 지도자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알려 준다**.”

καὶ **φρονοῦσιν** τὸν τυφλὸν **λέγοντες** αὐτῷ (10:49)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 말한다**.”

나는 5:15의 경우 “눈여겨보는데, ... 앉아 있다.”라고 옮기기보다, “앉아 있는 것을 눈여겨본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5:35와 10:49의 경우 현재분사인 λέγοντες는 발화 행위 자체를 표현하기보다 직접화법을 이끌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번역 과정에는 생략하되 인용되는 대사 자체를 굵은 글씨 등으로 강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하지만 유사한 현상은 15:20, 21처럼 ‘역사적 현재’를 주동사로 하는 주절에 안긴 종속절을 별도의 문장으로 떼어내어 이를 다시 ‘현재시제’로 옮기는 경우에도 반복해서 나타난다(12:18 참조). 이런 경우 현재시제가 포함된 번역문을 보고 ‘역사적 현재’가 아니라 ‘분사’나 ‘종속절’을 번역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독자가 몇이나 될까? 오히려 “번역해설”에 의거하여 ‘역사적 현재’를 번역한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여 각주 등에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2.5. 단순히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고 특별한 용법을 반영하여 번역한 경우

마지막으로 ‘역사적 현재’를 단순히 현재시제로만 옮기지 않고 현재시제의 특별한 용법을 반영하여 번역한 경우도 눈에 띈다. 14:51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구절에 대한 『새한글』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καὶ **κρατοῦσιν** αὐτόν (14:51)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한다**.”

14:51의 경우 ‘역사적 현재’인 κρατοῦσιν을 그저 “붙잡는다”라고 옮기지 않고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옮겼다. 노력이나 의지, 의도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동사는 ‘비완결적 동작상’을 표현하는 현재시제나 미완료시제로 사용될 경우 문맥상 자연스럽게 ‘시도’라는 개념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례는 흔히 ‘의도를 나타내는 현재/미완료’(conative present/imperfect)라는 제하에 서술되어 왔다(마 3:14; 요 10:32; 행 26:28; 갈 5:4 등 참조).²⁸⁾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현재/미완료시제는 통상 해당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보다는 시도되었지만 완료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어감을 전달한다.²⁹⁾ 예를 들어 『새한글』은 마가복음 9:38(εἶδομέν τινα ἐν τῷ ὀνόματί σου ἐκβάλλοντα δαιμόνια καὶ **ἐκωλύομεν** αὐτόν)을 “우리가 선생님 이름을 내세워 어떤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미완료시제인 ἐκωλύομεν을 “막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용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51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목할 것은 κρατέω(to grasp, to take hold of)라는 동사 자체가 ‘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완결적 동작상’과 전후 문맥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결과적으로 이런 화용론적 함의를 만들어내는데, 『새한글』이 이러한 사정을 잘 포착하여 적절하게 번역했다는 점이다.

14:51의 번역과 관련하여 내가 강조하려는 요점은 ‘역사적 현재’가 사용된 다른 용례들도 이와 같이 구체적인 쓰임이나 용법을 고려하여 번역해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상술했지만, ‘역사적 현재’는 단순히 생생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체 분포나 빈도, 용법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현재’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기는 것으로 이 독특한 용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수사적 효과들이 올바르게 구현되는지 살펴야 한다. 매 경우마다 해당 ‘역사적 현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번역에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28) W. W. Goodwi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of the Greek Verb*, 11-12(§36); D. E.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8(§11), 12(§23); H. W. Smyth, *Greek Grammar*, 424(§1895);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880, 885; *BDF*, 167(§319), 169(§326); C. F. D. Moule, *An Idioms of New Testament Greek*, 8; D.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534-535; K. L. McKay,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42(§4.2.6); 장성민, 『현대언어학적 논의를 반영한 중급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8), 57-58, 77-78.

29)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880; D.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534.

2.3. 제언

이제까지 나는 마가복음의 ‘역사적 현재’ 가운데 『새한글』이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기지 않은 구절들을 중심으로 번역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물론 마가복음 원문의 ‘역사적 현재’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김으로써 마가의 특징적인 문체를 살리고자 한 시도는 그 자체로 매우 바람직하며, 향후 우리말 성경 번역 전통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큼 획기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고대 그리스어의 ‘역사적 현재’ 용법을 두고 벌어지는 논의를 참고할 때, 이 용례들을 우리말로 옮기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2.3.1. 마가가 ‘역사적 현재’를 활용하는 방식들

먼저 ‘역사적 현재’의 정의로부터 시작해 보자. 신약성서 그리스어에 국한하자면, ‘역사적 현재’란 복음서처럼 과거 사건을 묘사하는 서사문에서 사용된 현재시제를 일컫는다.³⁰⁾ 그렇다면 과거 사건을 묘사하는 서사문에서 왜 ‘현재시제’를 사용하는가? “번역해설”은 이에 대해, “복음서 저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마가는 역사적 현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용 묘사에 생동감을 더하는 특징을 자주 보여 준다.”라고 설명한다. 해설서라는 글의 특성상 ‘역사적 현재’의 쓰임을 상술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번역해설”은 이른바 ‘생생함’(vividness)을 위한다는 전통적인 설명에 기대어 마가의 문체적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역사적 현재’의 취지를 내용 묘사의 ‘생생함’에서 찾는 것은 기존의 표준 문법서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제시하는 설명이기도 하다.³¹⁾ “역사적 현재를 활용하는 이유는 통상 마치 독자가 사건이 펼쳐지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해당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³²⁾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어로 글을 쓴 저자들은 ‘역사적 현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부정과거가 기본 시제로 사용되는 서사에 균열과 파격을 줌으로써 순간적인 ‘타임슬립’(time slip)을 꾀하고 이야기에 생생함을

30) 앞의 각주 1을 보라.

31) W. W. Goodwi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of the Greek Verb*, 11(§33); D. E. W. Burton,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9(§14); H. W. Smyth, *Greek Grammar*, 422(§1883);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866-869; *BDF*, 167(§321); D.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526; H. von Siebenthal,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20.

32) D.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526. 강조는 원저자의 것.

더하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의 관련 논의는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대의 여러 그리스어 작품들에서 ‘역사적 현재’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들이 누적되고 고대 그리스어의 시체에 대한 이해와 담론 분석 과정이 정교해지면서 ‘생생함’이라는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풍부한 용례들이 확인된 것이다.³³⁾ 무엇보다 고대 그리스어의 시체가 단순히 ‘시간’만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저자/화자의 관점(aspect)을 변별함으로써 화용론적 차원에서 다양한 동작류(Aktionsart)를 구현한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역사적 현재’가 담당하는 담론 문법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졌다.³⁴⁾ 헬라 저자들은 ‘역사적 현재’를 활용함으로써 그저 ‘시간차’를 통한 장면 묘사의 생생함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거나, 주제나 국면을 전환하거나, 특정 내용이나 장면을 부각시키거나, 이어지는 내용을 지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서사에 입체감을 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역사적 현재는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이론화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모라토리엄 선언부터³⁵⁾ 모든 용례를 포괄하는 단일한 원리를 규명하려는 시도들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갔지만,³⁶⁾ 마가복음에 국한하자면 ‘역사적 현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대여섯 가지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⁷⁾

33)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에는 ‘생생함’(vividness)이라는 설명이 후대의 인도-유럽어에 나타나는 현상을 역으로 투영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C. D. Osburn, “The Historical Present in Mark as a Text Critical Criterion”, 490-495를 보라.

34)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E. Robar, “The Historical Present in NT Greek: An Exercise in Interpreting Matthew”,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329-352; S. J. Wilhite, “Revisiting the Historical Present: John 13 as a Test Case for the Prominence of Discourse Features”, *TRINJ* 37 (2016), 196-211; C. Bary, “Tense in Ancient Greek Reports”, *Journal of Greek Linguistics* 12 (2012), 29-50; S. M. B. Wilmshurst, “The Historic Present in Matthew’s Gospel: A Survey and Analysis Focused on Matthew 13.44”, *JSNT* 25:3 (2003), 269-287;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226-239; S. H. Levinsohn, *Discourse Features of New Testament Greek*, 197-213; S. Rung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124-143; C.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57-76 등을 보라.

35) J. H. Moulton, *A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Greek*, vol. 3. *Syntax*, N. Turner, rev. (Edinburgh: T & T Clark, 1963), 61.

36) ‘생생함’(vividness)이라는 전통적 설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제시되는 대표적인 대안은 역사적 현재가 ‘zero aspect’이므로 부정과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P. Kiparsky, “Tense and Mood in Indo-European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4 (1968), 30-57, 특히 33; S. M. Reynolds, “The Zero Tense in Greek: A Critical Note”, *WTJ* 32 (1970), 68-72, 특히 69; C. D. Osburn, “The Historical Present in Mark as a Text Critical Criterion”, 486-500 등을 보라.

37) B. M. Fanning,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232. 패닝(B. M. Fanning)의 설명은

1) 새로운 단락 시작하기(통상 새로운 장면이나 등장인물, 새로운 서사 단위를 지시함)

예) καὶ γίνεταὶ κατακεῖσθαι αὐτὸν ἐν τῇ οἰκίᾳ αὐτοῦ (2:15)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잠수실 때이다.”

2) 기존 단락이나 상황에 새로운 등장인물 도입하기

예) καὶ ἔργεταὶ πρὸς αὐτὸν λεπρός (1:40)

“그런데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3) 기존 단락 내에서 등장인물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 보여주기

예) καὶ ἔρχονται εἰς τὸν οἶκον τοῦ ἀρχισυναγώγου (5:38)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다.”

4) 전체 단락을 도입하는 문장 다음에 쓰여 (단락 내의) 구체적 서사 단위 시작하기

예) καὶ πάλιν ἤρξατο διδάσκειν παρὰ τὴν θάλασσαν· καὶ συνάγεται πρὸς αὐτὸν ὄχλος πλείστος (4:1)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매우 큰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다.”

5)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발화동사인 λέγω

가) 직간접 화법 이끌기(이어지는 내용 지시하기)

예)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Ἔγωμεν ἀλλαχοῦ … (1:38)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데로 갑시다 …””

나) 담론-화용적 기능(discourse-pragmatic function) 담당하기(이어지는 내용 지시하기)

예) καὶ κράζας φωνῆ μεγάλης λέγει (5:7)

“그리고 크게 소리 질러 말한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마가는 ‘역사적 현재’를 꽤 다채롭게 활용한다. 과거 사건을 언급하는 서사문의 기본 서술 시제(default tense)는 부정과거 시제인데, 마가는 서사를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역사적 현재’라는 돌출부를 적절히 배치하여 서사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곤 한다. 불쑥불쑥 끼어드는 간헐적 ‘불협화음’을 통해 다양한 수사적 효과를 야기함으로써 이야기의 굴곡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새한글』이 ‘역사적 현재’를 현재시제로 옮김으로써 기본적으로 과거시제로 일관되는 우리말 번역에서 마가 특유의 ‘시제 이탈’을 과감하게 살리고자 애쓴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도다.

하지만 과거시제를 현재시제로 옮기는 것으로 마가가 노리는 다채로운

부스(R. Buth)의 논의를 기초로 발전시킨 것이다. R. Buth, “Mark’s Use of the Historical Present”, *Notes on Translation* 65 (1977), 7-13 참조.

수사적 효과들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어떤 문장이 표현하는 ‘시간값’(tense value)은 동사의 시제-형태(tense-form)로 판별된다기보다, 해당 문장이 묘사하는 상황과 연결되는 절-외부의 시간 구조(clause-external temporal structure)로 판별된다.³⁸⁾ 특히 복음서와 같은 서사문의 경우 장르 자체가 ‘과거’라는 시간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상관적 장면이나 일반적인 원칙을 표현하는 인용문 등을 제외한 서사의 흐름 자체에 대한 언급은 시제-형태와 무관하게(즉 부정과거든, 미완료든 현재든) 모두 ‘과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렇게 보자면 ‘역사적 현재’는 ‘타임슬립’을 통한 생생함만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수사적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채롭게 사용되며, 오히려 이를 번역문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2.3.2. 몇 가지 제언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개정 과정에 참고할 만한 두어 가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마가가 ‘역사적 현재’를 새로운 단락을 도입하거나 장면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위의 1-4번에 해당), 주요한 지점에 사용되는 ‘역사적 현재’를 기준으로 단락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5:20이다. 마가는 15:20상반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희롱하는 장면을 마무리 짓고, 15:20하반에서 *καὶ ἐξάγουσιν*이라는 ‘역사적 현재’를 활용하여 장면이 전환된다는 점을 표시한다. 희롱이 끝나고 십자가 처형 절차를 개시했다는 말이다. 『새한글』은 이 구절을 한 절로 묶어 16-20절 전체를 하나의 단락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내용상 15:20하반부터 ‘골고다로 가는 길’(via ad Golgotha)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다는 점은 꽤 분명하다(6:6도 참조).³⁹⁾ 이와 관련하여 마가가 장면 전환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역사적 현재’들 중에 일부를 마태나 누가가 다른 시제로 대체하면서 종종 *ἰδοῦ*라는 감탄사를 첨가한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만하다(마 8:2, 24; 9:2, 18; 12:46; 26:47; 눅 5:12, 18; 8:41; 22:47 등).⁴⁰⁾

38) W. Klein, “How Time Is Encoded”, W. Klein and P. Li, eds., *The Expression of Time* (Berlin: De Gruyter Mouton, 2009), 39-81, 특히 42-51.

39) 예컨대, NTG²⁸; K. Aland, *Synopsis of the Four Gospels*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1972), 315; R. H. Stein, *Mark*,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708; C. A. Evans, *Mark 8:27-16:20*, WBC 34B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496; F. 보봉, 『예수의 마지막 날들: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재구성』, 김선용 역 (서울: 비아, 2022), 37 등의 구분 참조.

40) 예를 들어 마태는 막 4:37의 *καὶ γίνεται λαίλαγ μεγάλη ἀνέμου*(“이때 거센 바람이 크게 **휘몰아친다**”)를 *καὶ ἰδοῦ σεισμός μέγας ἐγένετο ἐν τῇ θαλάσσει*(“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 마 8:24)라고 수정한다. 마가가 전체 장면을 도입하는 문장 다음에 ‘역사적

이러한 현상은 마태나 누가가 마가의 ‘역사적 현재’를 주요한 장면 전환 장치로 인지하고 시제를 바꾸는 대신 감탄사를 첨가함으로써 ‘장면 전환’ 장치를 나름대로 보존하려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한글』이 ‘역사적 현재’를 즐겨 구사하는 마가의 의도를 존중한다면,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서사적 전개 방식도 번역문에 세심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락 구분이나 단락 단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표기하는 방식 등으로 보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위의 5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발화동사인 λέγω의 번역 문제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λέγω의 현재시제 형태는 전체 ‘역사적 현재’ 빈도(150회)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2회에 달한다. 그런데 λέγω가 상위어 역할을 하면서 유사한 의미의 하위어(주동사나 분사)와 함께 쓰이면, 이때 현재시제 형태의 λέγω는 하위어와 구별되는 별도의 발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지시하는(cataphoric) 담론-화용적 기능을 담당한다(3:33; 5:7; 7:28; 8:29; 9:5, 19; 10:24; 11:22, 33; 14:61; 15:2 등).⁴¹⁾ 발화 행위 자체를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주로 발화의 실제 내용)에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역사적 현재’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길 경우 본래의 의도와 달리 발화 행위 자체가 부각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역사적 현재’는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기되, 그것이 담당하는 담론-화용론적 기능을 함께 살려 ‘이렇게’/‘다음과 같이’ 등의 부사를 곁들이거나 이어지는 인용문을 굵은 글씨 등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⁴²⁾

3. 결론

『새한글』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젊은이들의 언어, 독서 방식 등을

현재’를 사용하여 해당 장면 내에서 특정한 사건이 새롭게 전개된다는 점을 표현한다면, 마태는 시제를 바꾸는 대신 ἰδοὺ라는 감탄사를 첨가함으로써 유사한 수사적 효과를 야기한다.

41) S. H. Levinsohn, *Discourse Features of New Testament Greek*, 197-213; S. Rung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124-143; C.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57-76 등을 보라.

42) 장성민, “마가복음에서 상위어(hypermym)로 쓰이는 λέγω의 현재 시제-형태 번역 제안”, 1-30. 흥미롭게도 BDF, 420은 직접화법을 이끄는 λέγω의 현재분사 형태(λέγων)를 ‘다음과 같이’(as follows)라고 번역한다.

십분 고려하고, 기왕의 우리말 성경 번역 전통이 시도하지 못한 참신한 번역을 과감하게 제시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문법적 구조, 어원적 특징, 어순이나 대명사의 강조 용법 등을 꼼꼼하게 살펴 원문의 풍부한 의미와 분위기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감행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일이다. 원문의 ‘역사적 현재’를 우리말 현재시제로 옮긴 것은 그 대표적인 시도라고 할 것이다. 바라건대, 『새한글』이 이왕 마가를 위시한 저자들의 문체를 살리기로 하였으니 향후 개정 과정에 그들의 문체적, 담론 문법적 특징을 살리려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여기에서 제시한 의견과 제언들이 그 과정에 미력하게나마 참조되길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동사상, 마가복음, 역사적 현재, 한국어 번역, 그리스어 시제.

Greek Tense, Historical/Historic Present, the Gospel of Mark, Korean Translation, Verbal Aspect.

(투고 일자: 2022년 7월 26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9월 1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가다머, H. G., 『진리와 방법: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임흥배 역, 서울: 문학동네, 2012.
- 고영근, “민족문학작품과 서사시제”, 『冠嶽語文研究』 33 (2008), 56-70.
- 김언자, “서사텍스트에서의 현재시제의 용법”, 『불어불문학연구』 48 (2001), 545-566.
- 김천학, “동사와 상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한국어의 완망상과 비완망상에 대하여”, 『한국어학』 57 (2012), 179-206.
-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2011.
- 문숙영, “상 범주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몇 문제”, 『震檀學報』 120 (2014), 129-158.
- 박진호, “시제, 상, 양태”, 『國語學』 60 (2011), 289-322.
- 보봉, F., 『예수의 마지막 날들: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재구성』, 김선용 역, 서울: 비아, 2022.
- 송해정, “‘역사적 현재’ 다시 보기: 러시아어의 언어특성 분석을 통하여”, 『언어와 언어학』 59 (2013), 99-120.
- 윤평현, 『국어의미론 강의』, 서울: 역락, 2013.
- 이두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 장성민, “마가복음에서 상위어(hypernym)로 쓰이는 λέγω의 현재 시제-형태 번역 제안”, 『신약논단』 29:1 (2022), 1-30.
- 장성민, 『현대언어학적 논의를 반영한 중급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8.
- Aland, K., *Synopsis of the Four Gospels*,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1972.
- Bary, C., “Tense in Ancient Greek Reports”, *Journal of Greek Linguistics* 12 (2012), 29-50.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and rev.,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urton, E. D. W.,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in New Testament Greek*, Edinburgh: T. & T. Clark, 1898.
- Buth, R., “Mark’s Use of the Historical Present”, *Notes on Translation* 65 (1977), 7-13.
- Campbell, C. R., *Basics of Verbal Aspect in Biblical Greek*,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Campbell, C. R.,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07.

- Collins, A. Y.,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Comrie, B.,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Evans, C. A., *Mark 8:27-16:20*, WBC 34B,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 Fanning, B. M., *Verbal Aspect in New Testament Greek*,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Goodwin, W. W., *Syntax of the Moods and Tenses of the Greek Verb*,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889.
- Hawkins, J. C., *Horae Synopticae*, Oxford: Clarendon Press, 1909.
- Kiparsky, P., "Tense and Mood in Indo-European Syntax", *Foundations of Language* 4 (1968), 30-57.
- Klein, W., "How Time Is Encoded", W. Klein and P. Li, eds., *The Expression of Time*, Berlin: De Gruyter Mouton, 2009, 39-81.
- Kühner, R. und Gerth, B., *Ausführliche Grammatik der griechischen Sprache*, Hannover: Hahnsche Buchhandlung, 1992, 1898.
- Levinsohn, S. H., *Discourse Features of New Testament Greek: A Coursebook on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New Testament Greek*, Dallas: SIL International, 2000.
- Levinsohn, S. H., "Verb Forms and Grounding in Narrative",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163-184.
- Mastrorarde, D. J., *Introduction to Attic Greek*,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 McKay, K. L., *A New Syntax of the Verb in New Testament Greek: An Aspectual Approach*, New York: Peter Lang, 1994.
- Moule, C. F. D., *An Idiom Book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 Moulton, J. H., *A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Greek*, vol. 3. *Syntax*, N. Turner, rev., Edinburgh: T & T Clark, 1963.
- Neiryneck, F., *Duality in Mark: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the Markan Redaction*,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72.
- Osburn, C. D., "The Historical Present in Mark as a Text-Critical Criterion", *Biblica* 64 (1983), 486-500.
- Reynolds, S. M., "The Zero Tense in Greek: A Critical Note", *WTJ* 32 (1970),

68-72.

- Robar, E., “The Historical Present in NT Greek: An Exercise in Interpreting Matthew”, S. E. Runge and C. J. Fresch, eds., *The Greek Verb Revisited: A Fresh Approach for Biblical Exegesis*, Bellingham: Lexham Press, 2016, 329-352.
- Robert E. L., “Mark 5.1-43: Generating the Complexity of a Narrative from Its Most Basic Elements”, S. E. Porter and J. T. Reed, eds., *Discourse Analysis and the New Testament: Approaches and Result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9, 169-196.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34.
- Runge, S. E., *Discours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A Practical Introduction for Teaching and Exegesi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 Smyth, H. W., *Greek Grammar*, G. M. Messing, rev.,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 Stein, R. H., *Mark*,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 von Siebenthal, H., *Ancient Greek Grammar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Oxford: Peter Lang, 2019.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ilhite, S. J., “Revisiting the Historical Present: John 13 as a Test Case for the Prominence of Discourse Features”, *TRINJ* 37 (2016), 196-211.
- Wilmshurst, S. M. B., “The Historic Present in Matthew’s Gospel: A Survey and Analysis Focused on Matthew 13.44”, *JSNT* 25:3 (2003), 269-287.

<Abstract>

**An Evaluation on the Translation of the Historical/Historic Present in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NKT NT&Ps)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vision:
Focusing on the Gospel of Mark**

Sung-Min Jang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When translating the so-called historical/historic present (hereinafter, HP) in the Greek New Testament, it has been commonly practiced to translate it into the past tense regardless of the type of target language. However,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hereinafter, NKT NT&Ps) translates the HP in the Greek New Testament into Korean present tense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is a new and unfamiliar attempt, and that it has opened a new era in the tradition of translating the Greek Bible into Korean. Being unfamiliar, it is highly likely to be the subject of the most active discussion in future evaluation and revis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evaluates how the HP is currently translated in the NKT NT&Ps, focusing on the Gospel of Mark. For this, this paper first examines and evaluates the cases where the HP has not been translated into the Korean present tense even though it is so in the Greek text by comparing it with other passages in which the HP has been translated into the present tense. Then this paper scrutinizes closely the translation status of the HP in NKT NT&Ps by dividing it into five major cases where:

1) the HP in the Greek text was simply not translated into Korean present tense;

2) same phrases in the original Greek text are translated differently or unidentical phrases are translated into the same phrase;

3) the HP in the complex sentence of the Greek text cannot be identified because the complex sentence in Greek has been translated into one sentence in Korean;

4) misunderstanding is caused; and

5) the translation reflects special usage of the HP in the ancient Greek rather

than a simple translation into Korean present tense.

Next, this paper explains how Mark utilizes the HP, and proposes a couple of suggestions to consider in the future revision process.

1) Considering that Mark uses the HP to introduce new paragraphs or to distinguish scenes, it would be better to divide paragraphs based on the HP used for that purpose.

2) When the present tense of λέγω acts as a high-order word and is used with a low-order word with a similar meaning in the same sentence, it does not represent a separate utterance that is distinct from the low-order word, but rather plays a cataphoric discourse-pragmatic function. It would therefore be better to translate it appropriately.